

“書로 소통하세요~”

‘독서의 달’
ACC 프로그램
...27-29일

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기조강연·컨퍼런스 등
차인표·공씨 작가 강연부터 북버스킹·북마켓까지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올해 5회째를 맞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도시,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AI·유령 등)이 공존하는 아시아 도시의 이야기를 전한다. 행사에는 싱가포르·팔레스타인·몽골국·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작가들이 참여해 아시아의 가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다.

27일 오전 개막식에서는 올해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아다니아 쉬블리 시상식이 열리며 수상자의 기조강연이 잇따라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도시와 문명: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1세션 컨퍼런스가 열린다. 일본 소설가 호시노 도모유키, 대만 소설가 우밍이, 사우디아라비아 작가 야설 바흐자, 소설가 장류진·안희연, 시인 예소연, 평론가 이소 등이 참여한다.

2세션은 ‘오래된 미래: 전통과 현대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작가 에카 쿠르니안, 베트남 작가 구엔 트롱 꾸이, 몽골 작가 루브산돌즈 울찌투스, 시인 이소연·김지은, 평론가 고명철이 함께 한다.

28일 오후에는 3세션 ‘세계의 위가: 공존과 상생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올해 수상자 아다니아 쉬블리를 비롯해 싱가포르 작가 스테파니 독포, 우즈베키스탄 작가 바크히티올 리술오브, 소설가 이서수·이지·심윤경, 시인 김현 등이다.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기간 아시아 문학에 대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유라시아 그림책 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책 읽는 ACC: 북버스킹·북마켓 등 도서 체험 오는 28-29일에는 ‘서(書)로 만난 사이’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 ‘책 읽는 ACC’가 진행된다. 먼저 문학작품을 음악으로 풀어가는 ‘북버스

킹’이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에서 펼쳐진다. 28일 밴드 재주소년이 나서 장류진의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낭독하고 책 내용과 어우러지는 곡을 선사한다. 29일에는 오은 시인이 시집 ‘없음의 대명사’를 낭독하며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잇따른다.

ACC 문화장조원 지하 2층 북도에서는 전국 독립서점 및 출판사 40개 사가 참여하는 ‘북마켓’이 열리며 야외에서는 ‘플리마켓’을 통해 독서관련 상품 및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도서관 북토크: 28일 차인표·29일 공씨 작가 28일과 29일 ACC 극장3에서는 북토크 행사가 열린다. 28일에는 배우 차인표의 북토크가 마련됐다. 그의 저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옥스퍼드대 교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배우가 아닌 소설가로서의 철학과 글 쓰는 작업에 대해 강연한다.

29일에는 ‘우리 오늘도 살아있네?’ 저자 공씨 작가가 관객들과 만난다. 공씨 작가는 내적 성장과 치유, 자존감, 사회문제 주제로 작업하는 ‘케이-인스타툰’의 대표 작가로서 고민과 목표, 작업 노하우를 들려준다. 이와 연계한 도서관 미니전시는 오는 29일까지 ACC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청년 시선으로 ‘광주의 문화’ 말하다

ACCF ‘제2회 7인7색7분스피치’...내일 G.MAP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 7명이 바라보는 지역 문화예술은 어떤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ACCF, 이하 지원포럼)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G.MAP 제2전시실에서 ‘제2회 청년 7인7색7분스피치’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7명이 바라보는 광주 문화예술 7개 분야(7색)의 현실을 7분 내에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tvN 별거벗은 세계사와 JTBC 세계다크투어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인문(최명진 광주매일신문 기자), 국제화(아담 브랜디 전남대 언어교육원 영어강사), 도시브랜드(이예림 전

남대 서비스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청년문화(오예슬 전남대 아트&디자인 테크놀로지 대학원), 미디어아트(김소진 독립큐레이터), 축제(정의림 2024 아시아 도시 간 ODA 운영감독), 스트리트댄스(정미현 아이엠댄스 스튜디오 원장) 7개 분야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문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약 7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종합토론에는 변현진 전남대 교수, 신준호 전남대 교수, 안태홍 전남과학대 교수, 이경호 G.MAP 센터장이 참여해 청년들이 제시한 광주 각 분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입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청년들이 진단한 광주 문화의 현실에 대한 참신하고 새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7인7색7분스피치를 정례화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현대적 감성으로 만나는 신민요

‘높은 노래의 좌표’

뮤직밴드 더툰...27-28일 북구문화센터

100년 전 유행가였던 신민요를 오늘날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 전통음악을 재해석해 실험성 강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뮤직밴드 더툰(사진) 초청공연 ‘높은 노래의 좌표’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음악이라는 시공간의 통로를 통해 1900년대 혼란스러운 시대와 삶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신민요가 당시 대중들의 유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대응성을 반영해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객과

의 상호교감을 위해 영상을 통한 시간의 서사성을 시각적으로 표현, 공연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날 공연에서 더툰은 ‘꽃을 잡고’, ‘개나리고개’, ‘삼살개타령’, ‘피리소리’, ‘관서천리’, ‘오동나무’ 등 1900년대 최고의 근대민요 6곡을 비롯해 더툰의 창작곡인 ‘낙산야경’, ‘파수꾼’, ‘뿔꿈치를 들고’ 등 총 9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나리 북구문화센터 공연기획과장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공연장 밖에서부터 연주와 함께 입장해 자유롭게 창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색다른 관객물입형 공연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비지정석 중성을 반영해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객과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학술대회

오늘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광주 지역의 중요 사적인 충효동 분청사기에 대한 이해와 향후 과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6일 오후 1시 대강당에서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1부 ‘광주 충효동 가마터 운영과 현재’, 2부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경숙 충북대 교수가 광주 충효동 발굴의 60년 궤적을 살펴보는 기조강연으로 학술대회의 막을 연다. 주제발표 이후로는 강경숙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김윤희(국가유신청), 박정민(명지대), 권혁

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성현주(부산박물관), 권소현(국립익산박물관), 조은정(고려정자박물관)의 토론이 펼쳐진다.

아울러 학술대회 당일에는 광주 충효동에서 발굴된 미공개 도판을 오전 10시부터 국립광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특별 공개한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이번 학술대회 연구 성과를 보완해 학술총서(통권 제2호)로 발간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